

추위 뼈에 사무쳐야 매화 향기를...

배휴거사 묻고 황벽선사 답한 돈수의 길

〈전심법요(傳心法要)〉는 배휴(797~870)거사가 황벽희운(?~850)선사에게 법을 묻고 이에 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황벽선사의 어록은 보리달마의 '일심법'과 육조 혜능의 '돈교법문'을 투철하게 설교했다고 평가될 만큼 선문의 귀한 자료이다.

황벽선사는 육조-남악-마조-백장-황벽-임제로 이어지는 당대(唐代) 조사선의 황금기에 선풍을 크게 드날렸던 분이다. 이 조사들께서는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 간단명료하게 불법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선의 대중화에 크게 성공했다.

당대 일류의 지식인이었던 배휴는 842년 강서의 종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 스승인 황벽선사를 가까운 용흥사에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참배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6년 후 안후의 완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도, 스승을 개인사에 모시고 법을 물었다. 거사는 스승의 소중한 어록을 기록해두었다가, 선사께서 돌아가시자 그 제자들에게 증명을 얻어서 세상에 공개했다.

종릉에서의 어록을 '전심법요'라 하고 완릉에서의 어록을 '완릉록'이라고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둘을 통칭하여 〈전심법요〉라고 부른다. 오늘날까지 많은 선수행자들이 이 책을 통해 중도정견을 확립하였는바, 황벽선사의 심요를 세상에 전한 배휴 거사의 공이 크다 하겠다.

이 책은 원래, 임제종에서 종지종통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조-백장-황벽-임제선사의 어록을 모아 편찬(4가어록)에 실려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허스님이 편집하여 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된 〈선문촬요〉에 포함되어 있다. 서양에는 1958년 영국인 존 블로랜드의 번역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



으로 소개되었다.

배휴가 황벽선사를 만나 깨달음을 얻은 기원은 〈완릉록〉에 전하고 있다. 스님께서 회창법단을 만나 홍주 땅의 개원사에 은거하고 있을 때였다. 상공 배휴거사가 어느 날 절에 들어오다가 벽화를 보고, 안내 하던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입니까?”
“고승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승들의 걸모습은 여기에 있지만, 고승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지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배휴가 “이곳에 선승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상공은 마침내 황벽선사를 청하여 뵈고, 주지스님에게 물었던 일을 선사께 여쭙었다. 그러자 황벽선사가 불렀다.

“배휴!” “예!” “어디에 있는고?”
배휴는 이 말 끝에 깨치고 선사를 청하여 개당설법을 하시게 하였다.

배휴는 이전에 규봉종일의 여러 책에 서문을 쓸 정도로 도량이 깊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황벽선사와의 첫 만남에서 바로 깨달음의 기연을 얻게 되었다고 〈완릉록〉

은 전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일은, 배휴거사와 황벽선사의 문답이 갖는 의미다.

비록 배휴가 황벽선사의 말끝에 대의를 알아챘지만, 그 후 스승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아직 상을 여윈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돈오'를 체험했지만 아직도 '점수'의 입장에 있는 수행자에게 선지식에서 '돈수'의 길을 제시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고위관료인 배휴가 정중하게 여쭙본 덕분인지 몰라도, 황벽선사는 이 책에서 격의의 계승이나 선문답을 제시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간명 직절하게 대답해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조계 정전(正傳)의 정통 선사상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벽선사의 '박비향' 계승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창이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은 예상외 아니니(塵勞勉脫事非常) 고삿을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이다[緊把繩頭做一場].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으면[不是一番寒徹骨]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爭得梅花撲鼻香].

수불 스님은...

지명 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를 197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9~1989년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언론문화상 대표 등을 맡고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센터 선원장으로 활동하며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보살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배울 때, 마치 허깨비가 배우는 듯 해야 한다.

(소품(小品) 반아비라밀경)

2012년에는 초기경전의 구절을 발췌해 연재했다. 이번 호부터는 대승경전인 〈화엄경〉 〈금강경〉 〈유마경〉 등에서 각 3회씩 구절을 발췌해 연재하기로 한다.

얼마 전의 일이다. 박사논문 심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화제가 '비유(譬喻)'로 옮겨졌다. 우리 불교학자들 중에서 누가 비유를 잘 하는가에 하는 이야기였다. 저마다 자기가 들은 기막힌 비유이야기를 공개했다. 몇몇 교수님들의 이름이 거명됐는데, 사실 내 마음 속에서 가장 강력한 '비유제일(譬喻第一)'로 남아있는 분은 (부처님을 제외한다면) 원효 스님이다.

“허깨비 호랑이가 허깨비 술사를 잡아먹다.” 이 비유는 원효 스님의 참회록이라 할 수 있는 〈대승유점참회〉라는 책에 나온다. 술사(術士)는, 지금 말로 하면 마술사이다. 이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호랑이 한 마리를 만들어 냈는데, 그만 이 허깨비 호랑이가 자기를 만들어준 마술사를 잡아먹고 말았다. 참, 기가 막히지 않는가?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허깨비 호랑이를 만들어낸 마술사는 허깨비가 아니다. 진짜 사람이지만, 그는 결코 허깨비가 아니다. 한편 그가 만들어낸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다. 허깨비 호랑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깨비가 아닌 사람(마술사)은 허깨비인 호랑이를 만들었다가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허깨비로 만들어진 호랑이는 그냥 허깨비일 뿐이어야 한다. 잡아먹는다는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허깨비로 된 호랑이를 과연 호랑이라 할 수 있을까? 있다고 할 수도 없을 터이다. 없다고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허깨비인 자기(호랑이)를 만들어준 마술사를 잡아먹고 말았다 하지 않는가. 잡아먹는다는, 라는 행위 속에서 이미 허깨비는 허깨비가 아닌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빨로 물어아 하고, 씹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아닌가.

이 비유를 통해서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 부처님의 마음(佛性)을 다 갖고 있으며

로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쁜 일을 많이 하고서, 그 과보로 지옥을 가게 된다. 그러나 불성의 소유자로서 불성을 잘 지켜가지 못하고서 나쁜 행위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의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것과 같으며, 그 과보로 지옥을 가는 것은 자기가 만든 허깨비 호랑이에 잡아먹히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비유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친구를 만나서 함께 영화관에 가는 것도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일이고, 그 친구랑 다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찌뽕해 지는 것도 허깨비 호랑이를 만드는 일과 같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그림 · 박구원

것은, 다 허깨비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놓고서 자기가 잡아먹힌다. 이런 허깨비 이야기는 대승경전에서 자주자주 만나게 된다. 특히 반야부경 전에서는 단골 메뉴다. 다만, 〈소품 반야바라밀경〉에서 등장하는 이 허깨비는 원효 스님의 비유에서보다 훨씬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원효스님에게서는 허깨비를 만드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소품 반야바라밀경〉에서는 우리 모두 허깨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빼도 없고, 이빨도 없는 허깨비! 우리 스스로 허깨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나 자신을 허깨비, 즉 있지만 있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저 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이 되리라. 그 면허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6>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② 사정근(四正勤)

언제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그 동안 세운 계획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미련이 남아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 숨 내쉬며 후회해도 시간은 이미 지났다.

과거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다가온 새해를 희망차게 보낼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자. 그런데 단지 계획만 세운다면 예전처럼 윤투사미,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잘 실천하는 길일까? 불교에서는 이를 사정근(四正勤)으로 설명한다. 특히 불자들은 이 사정근을 바탕으로 새해의 좋은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자.

사정근은 '바른 노력'의 방법론이다. 원시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인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중에 사념처가 몸[身]·감수작용[受]·마음[心]·마음의 대상[法]에 대해 주의 깊게 통찰함으로써 번뇌를 없애고 열반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정근은 이러한 사념처의 지혜를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단의(四斷意)·사의념단(四意念斷)·사의단(四意斷)·사정단(四正斷)·사정승(四正勝)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달라도 모두 팔정도의 정정진과 같이 '바른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념처 지혜로 수행하는 바른 노력

특히 사정단의 단斷, 끊음은 게으른 마음을 끊는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사정근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있어서 노력은 증장하고 나태함은 끊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수행은 모두 번뇌를 여이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근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식적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실천윤리를 제공한다. 즉 선법(善法)은 증장시키고 악법(惡法)은 끊어 없애는 것이다. 〈중아함경(中阿含經)〉 및 〈잡아함경(雜阿含經)〉 등은 사정근의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한다[律儀斷], (2)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斷斷],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도록 노력한다[隨護斷], (4)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修斷].

여기에서 선이란 깨달음을 향하기는 수행에 있어서 점점 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쪽의 노력이고 악이란 그와 반대로 방해가 되는 쪽의 행위를 말한다. 즉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윤리·정지·경계·건강 등의 모든 면에 해당된다. 예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

한 악을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 율의단(律儀斷)이고 이미 악한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단(斷斷)이다. 또한 자원봉사나 선의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호단(隨護斷)이고 이미 자원봉사나 기부 등을 실행했다면 그것을 일시적인 행사로 끝내지 않고 더욱 많이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단(修斷)이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노력이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노력,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 등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바른 노력'을 권한다. 바른 노력이란 개인의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남과 내가 모두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실천행으로서의 노력을 말한다.

〈칠불통계(七佛通戒)〉라고 하는 경전에서 과거 일곱 부처님의 입을 빌어 모든 악을 짓지 말고 [諸惡莫作] 여러 선을 받들어 행하여 [眾善奉行]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自淨其意].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是諸佛教]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바른 노력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日 東國대 불교학사 · 前 本지기자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 지키 위한 전통 뜬, 침술, 한약 대특강

『동양의학방승국』이사장이신 덕운스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2월 19일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동양의학방승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 ▶ 오후 2시 ~ 4시 : 한방약초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약차 및 한약재 강의)
- ▶ 오후 4시 ~ 6시 :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월 15만원 (불교인 30%할인)

■ 문 의 : 02)3487-2311

강 사 약 력

- 덕운 스님 법계 : 대덕 / 중국 한의사
- 박정아 한약사 한의학 석사, 의과학 박사 / (사)대한한약사회 여한약사회장 / 저서 한방차 다이어트

“최신판” 락별(十二支神像型) 삼재풀이용봉

호신진언 【옴치림】

돼지띠상제해당자

토끼띠상제해당자

양띠상제해당자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락과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청담아트월드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 (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전사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